

# 사설

## 평일 공무원시험 철회하라

총무처가 기독교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일자를 평일로 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직장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고 수험장소와 교통 등 수험환경을 고려하여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모든 국가시험일을 일요일에 실시해 왔다. 지극히 타당한 국가시험정책으로 상식적인 관례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관습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민정부'를 지칭하면서 출범한 현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해설사건이 벌어지더니 각종 기독교 편향정책으로 불교계 등 다른 종교인들의 반발을 여러 차례 받아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가 시험일의 평일 결정은 '기독교 장로인 김대통령과 김한규 총무처 장관의 용단의 결과로 기독교계는 크게 환영한다'는 기독교계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다.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김대통령이 구랍 2일 국민일보 창간 6주년 기념 대담에서 "향후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정부주도의 행사나 시험을 가능한 한 평일에 실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15일 김한규 총무처 장관은 기독교보와의 인터뷰에서 "장로라는 입장에서 복음사역을 위해 과소되었다는 의무감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볼 생각"이라고 종교 편향적인 뼈뿔어진 국가정책관을 피력한 바 있다.

물론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는 지난 93년부터 '국가 및 기관행사의 주일 실시반대운동'을 펼쳐 온 한국복음주의협의회(한복협)의 끈질긴 로비와 압력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복협의 이같은 운동으로 초·중·고교 입학시험과 특수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도 지난 94년부터 평일에 실시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펼치는 현 정권의 '문민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일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종교의 입장만을 염두에 둔 불합리한 처사임에 틀림이 없다. 아전 3당은 지난 24일 일제히 이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현 정권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찌서 정권 말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종교 불평등 정책으로 종교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여기서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문제된 7급 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특정종교의 편을 든 점을 시인하고 깊이 참회해야 한다.

둘째, 더이상 헌법에 규정된 종교보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국가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주일성수'를 이유로 국가고시와 정부행사가 평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분명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다른 종교계나 수험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기도 하다.

셋째, 국민의 심부름꾼인 총무처 장관이 시험일자 공고가 있기 전에 이미 기독교계 언론에 장로서 "한국 교회에 부응하는 좋은 소식이 있을 듯"이라는 등 특정종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하루빨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현 정권은 불교계를 비롯한 수험생 등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올해는 더군다나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의 해'로 정해놓고 외래문화의 중심인 기독교의 입국권을 내세운다면 현 정권은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다. 위정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불교계도 보다 적극적인 범불교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열린마당

##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

### 무원칙 행정 시정돼야

청화 (조계종 중회부위원장)

총무처장관의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 결정은 2천만 불자는 물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다만 국가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처의 무원칙한 행정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총무처는 무원칙 행정의 표본인 이번 결정을 즉각 취소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만약 불교계와 야당, 대다수 언론이 제기한 이번 문제를 간과하고 평일시험을 강행한다면 지난해 '검정고시 시험일자 변경기도' '교육개혁위원회의 신학대학원 설립기도' '김대통령의 종교편향정책' 등의 연장선상으로부터 볼 수 없다.

### 장로장관의 행태 '개탄'

혜창 (조계종 총무부장)

국가고시는 직장 고시준비생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피해 오래전부터 일요일에 실시해 왔다. 그럼에도 올해 7급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기독교계의 요구에 따라 평일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편익과 관계를 무시한 처사다.

특히 이번 총무처장관의 발언내용은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종교간의 중립보다는 기독교의 장로 신봉이 앞서고 있음에 더욱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공인이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종교만을 우선할 경우 국민의 분열과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장관 해명·참회 있어야

지선 (전불련 상임의장)

지난 95년에도 검정고시 날짜를 4월



조계종 총무원 혜창총무부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1월24일 총무처 윤종규 처관의 예방을 받고 7급공무원 시험일자와 관련 불교계의 반발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16일에서 5월5일로 바꾸었다. 4월16일이 부활절이니 기독교명절에 교회를 가도록 해야지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시험날짜를 바꾼 전례에 대해 불교계의 지적과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박탈이며, 종교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처사이다. 그러므로 국가고시의 평일 실시는 보다 많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것이다. 종교간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이라 할 수 없다.

김한규총무처장관은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 참회해야 할 것이며, 김영삼대통령은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이단 편향시책에 분노

법현 (음성 고심사 주지)

일단 공무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고 전국민이 신앙하고 있는 모든 종교를 살필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특정종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전 국민앞에 사과하고 방침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95년도 초과일 행사날 검정고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12월에 성탄절 특사가 실시됐다. 그러나 초과일 특사는 폐지되지 않았는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특정한 날에 실시되던 특사는 폐지됐다고 했음에도 성탄절특사의 실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종교편향정책에 명확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국민 반정부정서 확산

김재일 (재가불자연합 상임위원장)

국가의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공무원 시험을 특정종교의 편의를 위해 평일에 실시하는 것은 공평무사해야 할 공직사회의 도리가 아니다. 95년 검정고시 시험을 부활절을 피해 실시하려 했던 적도 있어서 자칫 총무처

의 이번 결정이 불교계의 반정부 정서의 확산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정책 당국자는 파악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평일 실시를 종교편향정책으로 간주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

### 반대여론 묵과말아야

이상민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우리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대통령의 무분별한 개인적 신앙행태가 전체 종교간의 공존과 화합질서를 깨뜨리고 심각한 종교갈등을 낳고 있다.

이번에 자행된 총무처 7급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일자를 '주일성수'라는 특정종교집단의 주장과 요구에 의해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치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전국교회 모든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총무처의 공식사과와 7급공무원 공개채용 평일실시 계획을 전면백지화 하고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편향된 종교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직장인 일요일시험 '선호'

황인영 (흥국생명 생활설계사)

공무원직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신랄감 신부감의 좋은 조건에 꼽히기도 한다. 그래서 수천 수만명이 학교와 직장에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시험을 치른다면 공무원시험 응시를 위해 전업 취업준비생이 많아진다. 국가 인재를 등용하는 국가고시마저 빈익빈 부익부라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하나만을 위한 행정이 아님을 총무처장관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만평

## 현대만평



참! 발상도 7급이네!

737-0691

### 목어

매속에 넣었다. 제자가 말했다. "스님 제가 곧 슬터이니 그냥 놔두세요." 그때 노 스님은 효통을 쳤다. "이 멍청한 놈아, 곧 슬겠다고 말만 하고 있으면 답하고 주을 뿐이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앞에서 정치는 정쟁을 일삼고, 득세대를 배후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은 채 떠도는 말만 출몰처럼 난무하니 국민은 어찌할까 지하다. 이럴때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는 없을까.

어느날 한 고승이 제자를 데리고 들을 거닐고 있었다. 때마침 바람이 일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노 스님은 낙엽을 한장 한장 주워 소

### 봄이오고 있는데

물이 깨끗해지나. 한장 주으면 한장만 깨끗해질 것 아니냐."

그렇다. 허물들은 말잔치로 되는 일은 없다. 거기다 '책임회피' '남 탓하기' 까지 겹치면 오히려 과실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쇠에서 생긴 녹이 쇠에서 나서 쇠를 먹어 들어가듯, 방종한 자는 자기 행위 때문에 제 발로 걸어서 지옥으로 간다."

자업자득을 가르치는 <법구경>의 말씀이다.

'한보 태풍'을 잠재우려면 먼저 관련자들이 진실로 참회하여 양심을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개인도 국가도 회생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일에 충실하자. 그러면서 불맛이 채비를 하자. 미담 서정 주시인은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했다.

'술나무는 오히려 너겉이 짧고/스무 날쯤 있으면 매화도 핀다/천년묵은 고목나무 늙은 흙위엔/나초도 맛있게 살아 나간다' (입춘 가까운 날)

시를 읊으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그러면 봄이 오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경제를 살리는 지혜도 생기기 않을까.

## 아시아나 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97년 2월 14일, 2월 21일 (2회)

# 인도 불교성지 순례

아시아나 항공이 국내 최초로 운항하는 인도 특별 전세기로 저렴하고 편안하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십시오

### 특 전

1. 서울 - 델리 직항으로 빠르고 편안함.
2. 인도 국내선 이용으로 야간기차 이동 없음.
3. 성지지역 최고급 호텔 및 최신티비스 이용으로 안락함.
4. 한식 제공으로 식사문제 해결.
5.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안내인이 행사 진행으로 품격 높고, 차질이 없는 순조로운 성지순례 안내.

※연로하신 분에게는 특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희 불교 성지순례전문 여행사는 항상 불자님의 뜻깊은 성지 순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참금 1차 : 2월14일 - 2월 22일(8박9일) 139만원  
2차 : 2월21일 - 3월 1일(8박9일) 148만원

### 성지순례일정(9일간)

제1일 서울 - 델리  
제2일 델리 - 기원정사  
제3일 기원정사 - 가비라성 - 룸비니  
제4일 쿠시나가르 - 바이살리 - 파트나  
제5일 파트나 - 나란다 - 왕사성 - 부다가야  
제6일 부다가야 - 니린선하 - 바라나시 - 녹야원  
제7일 녹야원 - 갠지스강 - 아그라  
제8일 아그라 - 델리  
제9일 델리 - 서울

※ 상세한 일정은 별도로 보내드립니다.

▲ 충청권 ▲

예약문의 : (주) 금남관광 (042) 252-7780

▲ 호남권 ▲

(주) 승광관광여행사 (062) 222-7775